

## 순교자의소리, 존 로스의 ‘만주 선교 방법론’ 출간

순수한 복음 전도를 제국주의 선교라 낙인찍는 중국 정부에 반박 위해 110년 만에 책 출간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및 조선 선교사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을 출간했다. 이에 동 단체는 17일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존 로스 선교사는 무엇보다 조선과 중국을 사랑한 선교사”라며 “그는 아주 평범한 조선 사람들을 향해 선교했고, 평범한 민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존 로스 선교사는 항상 선교를 ‘똑똑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나온 지 110년 만에 한국에서 순교자의 소리가 이 책을 처음 번역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이 이제야 정식 출간한 이유로, 에릭 폴리 목사는 “중국이 2018년 2월 종교사무조례를 통과시키며, 기독교 박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 출간은 시의적절하다 생각”했다며 출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에릭 폴리 목사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3자 교회를 앞세워 기독교의 중국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며 “종교 사무 조례를 통해 등록제를 의무 시행함으로써 외국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3자교회로 등록할 것을 종용받고 있다”며 “2018년 겨울, 중국의 3대 가정교회인 베이징 시온 교회, 광저우 용길 교회, 청두 연약 교회들은 폐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존 로스가 확립한 본래 중국화 개념을 되짚으며, 순수 복음 전도를 서양 제국주의 선교라 비난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반박하고, 나아가 중국뿐만 아니라 선교지 고유문화를 존중하는 선교 실천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의미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거처로 내건 ‘기독교의 중국화’는 무얼까? 그는 “중국 정부 및 3자 교회 관점은 ‘현재 중국 내 기독교는 중국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

의 목적 곧 서양화를 위해 침투해왔다’는 것”이라 밝혔다. 하여, 그는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가 제 3자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서양적 기독교를 탈색하고 중국화 된 기독교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중국 정부 및 제 3자 교회는 선교사들이 중국의 가치와 문화를 무시하고, 서양적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침투시켰다”는 그들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 선교 방법론’은 이미 기독교의 중국화를 말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시 말해, 그는 “중국 문화 및 삶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 중국 고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존 로스의 선교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존 로스가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 중국화란 중국 현지 문화를 깊이 체현해, 중국 사람들을 더 많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 책은 중국 정부의 목표를 축전하거나, 늦추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그는 “중국 당국이 말하는 기독교의 중국화는 어쩌면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는 기독교를 길들이는 데 있다”며 “중국 정부 관료들은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의 중국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정부는 기독교의 중국화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3자 교회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전하며, “110년 전 씌어진 존 로스 선교사님의 책은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기독교이 중국화가 바로 가짜라는 걸 알려 준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중국 당국은 중국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던 존 로스 선교사 같은 사람들을 페인트로 지우고 있다”며 “도리어 중국문화에 맞는 기독교를 세우려는 선교사들의 주장을 ‘제국주의’라며 몰살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에릭 폴리 선교사는 존 로스 ‘만주선교 방법론’ p39 대목을 인용해, 존 로스가 말하는 선교 방식이 제국주의가 아닌 중국 사람들을 존중한 자유의 복음을 전했다는 걸 재차 강조했다. 내용은 다음과



“한국선교 일깨우고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및 조선 선교사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을 110년 만에 출간했다. 왼쪽이 CEO 에릭 폴리 목사, 오른쪽이 현숙 폴리 대표. 이들은 비둘기 나간 한국선교를 바로 잡고자 했다. © 노형구 기자

서 어떤 제국주의적 냄새는 나지 않는다”라며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존 로스 책을 읽고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말하고, 기독교의 중국화에 정면 반박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 선교 방법론을 중국 정부, 3자 교회, 학자, 특히 가정교회에 배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존 로스의 글을 통해 중국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추구했던 참된 의미의 기독교의 중국화를 알게 될 것”이라 전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수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며 “이유인 즉슨,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에 반하는 기독교를 퍼뜨린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선교사들은 적극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한국 선교사들은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2018년 12월 중국 가정교회인 ‘연약 교회’ 왕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며 “그들은

존 로스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우리 한국 교회는 중국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가정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후원뿐만 아니라 선교 활동으로 계속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그는 “존 로스 선교사의 ‘만주선교 방법론’은 중국 및 한국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에게 중국 선교에 있어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 교계 신문사 기자는 “현재에 맞춘 선교 방법론이 한국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 충분히 연구된 상황”이라며 “이미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굳이 존 로스 책을 설명하면서 현재화 선교 방법론을 들고 나온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에릭 폴리 목사는 “외국에 가면 현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 똑같은 공통점을 이야기 한다”며 “한국 선교사들이 기도 말씀에 헌신적이

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식 설교, 한국식 교회, 한국식 건물, 한국식 목사, 한국식 교육 훈련’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가 꺾박받는 기독교인들과 얘기 나누며 느낀 점은, 한국 선교사들이 기독교의 상황화 선교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그는 “존 로스 선교사가 어떻게 현지 상황에 맞춘 복음 선교를 해야 할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자”라며 “그래서 그런지 그 나라에 가서 선교 때,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헌금을 모아,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걸 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립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치는 걸 잊어버렸다”며 “현재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 방식의 교회처럼 보이면 안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노형구 기자

## “평화·통일 위해 남북경협 필요하다”

‘평화통일 평신도포럼’에서 기독교 경제학자 KPI 윤덕룡 원장 주장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통일준비 수단으로 남북경협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 남북한 경제 격차가 크지 않도록 북한의 경제 수준을 높여주고, 점진적으로 함께 경제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기독교 경제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경동교회에서 열린 ‘평화통일 평신도포럼’에서 윤덕룡 박사(한반도평화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윤덕룡 박사는 이날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통일”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먼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돌아보고,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향후 통일을 달성하려면, 남북한 양 지역이 각기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현재 ‘저소득식량부족국가’(FAO)이며, IFPRI의 세계중립지수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11번

째로 식량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윤 박사는 “북한의 경제성장은 아직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해야 빈곤극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현재 북한에서는 장마당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정되면서 10개년 경제개발계획 수립 발표(2011)와 5.30조치(2014) 등으로 어떻게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러 노력 중이라고 윤 박사는 전했다.

‘10개년 경제개발계획’은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핵 문제로 실패를 맛보게 된다. 그 대안으로 나온 5.30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로 말미암은 내부 개혁조치로, 김정은이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

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다. 윤 박사는 “내용들이 시장경제와 유사하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김정은 위원장의 인기가 상승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박사는 경제적 입장에서 남북간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한 경제통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먼저 그는 북한 지역 생산성이 한국의 60%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어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남북간 제도적 통합으로 경제적 국경이 사라져야 하며, 초기에는 상품이동과 장기적으로는 자본과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윤 박사는 “사회적 안정망 확충이 한국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멘은 통일 후 다시 갈라져 전쟁까지 불사했지만, 독일이 통일 후 잠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갈라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융화될 수 있었던 이유

는 ‘사회복지’ 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했기 때문이었기에, 한국도 통일을 대비해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남북경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윤 박사는 먼저 북한의 빈곤해소를 위한 경협을 이야기 했다. 후대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기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농업분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지속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경협으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해소, 나무심기 등 환경협력으로 가뭄 및 홍수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윤 박사는 남북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통한 물류협력 ▶지하자원 공동개발 ▶러시아가스관 연결, 동북아 수퍼그리드 등 에너지 협력 등을 이야기 했다. 또 그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경제특구 국제화 등 남북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제도적 수렴을 위한 경험의 방법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및 WTO 등의 가입 지원과 남북간 금융시장 단계적 개방 등을 이야기 했다.

윤 박사는 “초기 남북경협 추진력 확

보를 위해서 상호이익구조 및 조기에 시작 성과실현이 가능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빈곤과 재난 및 재해에 대한 협력으로 상호간 신뢰구축 ▶윈-윈이 가능한 경제협력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 확대 ▶북한 국제분업 및 국제사회 참가 지원으로 생산성 제고 및 경제체제 전환 ▶남북간 시장 및 제도적 통합 단계적 추진 ▶남북간 생산성 격차 및 제도적 차이 축소를 통한 경제통합 준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질의응답시간 윤 박사는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 통일 때는 동독 주민들에게 그런 것이 없었는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사고가 시장경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며 “김정은도 경제적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단점으로 “아직 (북한 사람들에게) ‘시장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좀 뜬아귀에 된다’는 사고가 있더라”며 “인프라 부족도 숙제”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박사는 “옆 나라가 굶

주리면 한 민족 한 형제가 아니라도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 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북한이 자유로운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덜 비दी워 있기에 아직 통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기주의 등이 극복되고 우리만 잘 되고 준비되면, 그럼 북한은 축복이다. 아직 제앙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내 탓’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평화통일 평신도포럼은 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 이근복 목사)와 평화통일연대(대이사장 박종화 목사)가 1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 벌써 3번째로, 다음 4차 모임은 2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전우택 교수(연세대의대 정신과)를 초청해 “교류협력사업과 의료지원”이란 제목의 강연을 듣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윤대규 교수(전 경남대 서울부총장)가 진행하고 윤덕룡 박사와 대화를 나눴다. 윤덕룡 박사는 독일 KIEI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은식 기자

##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 후보 확정…전광훈·김한식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선관위원회(위원장 이영훈 목사, 이하 선관위)는 16일 오후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9-3

차 선관위 회의를 열고 제25대 대표회장 후보로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와 김한식 목사(예장합동장신)를 확정했다.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했던 김은복 목사(예장개혁신)는 지난 14일 선관위에 사퇴의사를 밝히고, 공식 사퇴했다.

한편 한기총 선관위 서기 황덕광 목사는 “전광훈 목사, 김한식 목사를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후보자 기호추첨을 한 결과, 기호 1번에 김한식 목사, 기호 2번에 전광훈 목사로 결정되었으며, 후보자 공청회는 23

일 오후 1시에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갖기로 했다.

박용국 기자



# 한국창조과학회, 기도회 및 겨울 워크숍 개최



2019년 한국창조과학회 기도회 및 동계 워크숍을 마치고, ©한국창조과학회 제공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주말, 한국창조과학회는 2019년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한국창조과학회 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생명의 다양성”이라

는 주제로 수원에 위치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2019년 한국창조과학회 기도회 및 동계 워크숍”을 가졌다.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몽골 국제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보야스 최 박사님의 ‘바벨탑 사건의 역사성에 대한 언어학

적 증거’를 시작으로 성화리에 진행되었다. 현대 언어학 이론을 비롯하여 발음의 위치에 따른 언어 에너지의 크기, 자음과 모음에 따른 에너지의 크기 등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가 가지는 공통성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

학회 창립 38주년 기념예배에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 총장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시 126:5) 말씀으로 창조과학회와 합신이 교회와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38년 동안 씨를 뿌려왔는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좁고 험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함께 가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때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한윤봉 회장은 창조과학회 비전 선포식에서 성경적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한국 교회와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시 부흥케 하는 불씨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롭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약 2800

년 전에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요나 1:2)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회중과 함께 선포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아담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로 아담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원형적 인물 또는 부족의 족장 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진화론에 조화시키기 위한 성경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성경적 세계관과 신화적 세계관을 비교하는 강연을 하였다.

고려대학교 김준 교수는 ‘생물과 종류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종(species)과 종류(kind)의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종류 내에서의 다양한 변이는 진화가 아니라 적응의 결과라고 역설하였다. 건국대학교 정선호 교수의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분석’이란 강연에서 정보가 없는 noncoding DNA, 즉 쓰레기(junk) DNA로 알려진 유전자의 대부분이 생화학적 정보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정크 DNA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명과학 분야 연구의 개척지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의대 이은일 교수는 ‘창세기 인간의 수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900세 이상의 장수 기록과 노아홍수 이후의 급격한 수명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언어학적, 신학적, 생물학적 내용을 다루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워크숍 주제와는 색다른 내용으로 강사와 참석자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끝까지 자리하며 창조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한국창조과학회가 더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연합하고 협력하여, 학회가 가진 비전대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수호하며 교회와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을 감당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조은식 기자

## 2019년 교계 트렌드 키워드 ‘공공성’ ‘다양성’ ‘진정성’ 문화선교연구원 발표 ‘2019년 문화선교트렌드’

문화선교연구원(원장 백광훈 목사, 이하 문선연)이 ‘2019년 문화선교트렌드’(한국 사회문화 변동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선정하고, 2019년 떠오르는 트렌드들을 정리해 16일 발표했다.

문선연의 ‘문화선교트렌드’는 다가오는 한 해의 사회문화적 동향을 살피고 교계의 흐름을 전망하는 작업으로 매년 계속

해오고 있다. 문선연이 선정한 2019년 문화선교트렌드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한국교회의 역할을 재조명하다 ▶더욱 중요해지는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계속되는 움직임, 교회의 대응 #ChurchToo #WithYou ▶밀레니얼 세대, 교회 지형의 변화를 이끈다 ▶유튜브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

양성의 가치, 더욱 요구된다 ▶더불어 살기, 신앙과 생태감수성 등이다.

특히 문선연은 2019년 교계 트렌드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공공성’ ‘다양성’ ‘진정성’ 등을 꼽았다.

문선연은 “사회 전반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향한 갈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리더십 교

제, 재정적 투명성, 환경문제, 교회 내 성폭력 등의 이슈들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교회는 공적 책임에 대한 요청을 더욱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문선연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1인 가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세대 간 경험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 구성원

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 가운데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진정한 있는 복음과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세대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문선연은 2019년을 전망하며 “복음은 변화

지 않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며, 소통의 방식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의 작은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아픔과 변화하는 상황에 진정성 있게 응답함으로써 참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 배우 한혜진, 국내 난방 소외 가정을 위한 후원금 3천만 원



월드비전을 통해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배우 한혜진의 모습, ©월드비전 제공

월드비전의 홍보대사인 배우 한혜진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겨울철 온전한 난방을 하기 어려운 국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월드비전은 한혜진 홍보대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월드비전 맞춤형 난방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방 소외 계층 30가구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 가정당 100만원 규모로 난방연료(연탄, 기름, 가스비), 방한용품(온수매트, 난방렌트, 침구류 등), 주택수리(보일러 교체, 단열공사) 등 각 가정에 필요한 부분이 제공된다.

한혜진은 “난방비 격정으로 인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후원

하게 됐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나눔본부 전영순 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 준 한혜진 홍보대사에게 감사 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드비전 난방비 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혜진은 지난 2008년부터 11년째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3년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희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술비를 위해 기부하는가 하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영?유아용품을 지원하고, 라오

스와 동공고의 깨끗한 물이 필요한 지역에 식수펌프를 후원하는 등 아이들을 위

한 꾸준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일간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이겨내다. 나아가다.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안티푸라민

안티푸라민

안티푸라민

근육통 관절통 어깨통증

광고심의필 : 2018-1465-000502 부착장이 있을 수 있으나,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목적 (눅19:1-10)

1.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께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누가복음 18:18 이하에 돈 많은 어떤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네 명을 지키라” 하시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관원은 계명을 다 지켰으나 영생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고로 물질 기대심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35 이하에는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소경이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무슨 일이나고 묻는데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했을 때 예수께서 “보아라 네 믿음이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장재효 목사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시 받았음에도 돈에 애착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떠났지만 소경 자기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과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2. 예수님을 구경하러 모여든 여리고 주민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과정이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기사와 이적을 통한 표적들의 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 들었을 것 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 보거나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과정에 과다 징수하여 자기 몫을 챙겨 치부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증오(憎惡)의 대상이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들어온 터라 예수님을 만나 뵈고 싶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이미 예수님 주변을 겹겹이 둘러선 무리를 때문에 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뵈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행렬의 방향을 살펴 보다가 자기

는 쪽 길가에 서있는 뽕나무 가지로 올라가서 그 아래로 지나가실 예수님 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말고 뽕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쳐다 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생면부지초면(生面不知初面)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부르실까? 그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신성(神性)에 감동(感動)되었고 더욱이 자기 집에 유(留)하시겠다는 말씀에 서둘러 내려가서 예수님 앞서 자기 집으로 모셔 가는 데 못사람이 수군거리기를 “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하면서 삭개오를 멸시 폄하 하면서 예수님까지 같은 류(類)로 취급 하는 듯 했습니다.

3. 삭개오의 철저한 회개와 구원

고린도전서 12:3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해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들이기 바쁘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것을 토해(討索)한 것(역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했습니다.

민수기 5:7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븐지 일(20%)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피해 입은 사람에게 4배(400%)로 갚겠다 한 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온전히 용서 받기 원하는 간절함이다. 그 많은 재산(財産)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선언도 삭개오 자신이 지금까지 도적으로 살아온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아 구원 얻기 위한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 몰밭에는 도적질한 것에 20%만 더 계산해서 갚으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했으나 400%를 갚겠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지난날의 죄책감과 후회와 고됨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하심으로 그토록 철저했던 삭개오의 회개는 도적질한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심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롬4:16).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하셨으니 그날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 목적이 삭개오를 구원시킬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삭개오는 회개시 선언한대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았으며 돈 방적으로 알았던 여리고 세리장직을 즉시 버렸습니다. BIBLE DICTIONARY(바이블 사전어리/성경사전)에 의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서 그곳 감독과 교회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구제와 봉사를 힘썼기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가이사라 교회의 감도로 세워 탐욕에 이성을 잃고 도적질하는 괴수같은 그가 회개한 후 영적 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삭개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본능 따라 세속적 허욕을 채우려 죄악을 일삼고 있었으나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알아보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어 오로지 영적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희생적 헌신과 봉사로 구령성과를 위해 감동으로 묵화자로 성직자로 요긴히 쓰임 받았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열매도, 중생(重生)의 변화도, 내세(來世) 소망을 위한 섬김의 열매도 확실해질 때 주님께서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신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한 목적으로는 교회당이나 구경하러 또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구경삼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상 누구를 만나는

장소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밖의 시각에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통칭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15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극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 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연고로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에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기에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은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 정통한 말씀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삭개오와 같이 지금까지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고 성령님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성성과(靈的成熟)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임마누엘을 위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언행(思言, 行)이 확실하 거듯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선교를 위해 복음의 제물 되어 한 평생을 희생적 헌신으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의 ‘역사적 예수 연구 시리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성적 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2019.1.4.정본).

또한, ‘무효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학교 정관 규정과 그에 따른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2018.11.12.).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원장

구현을 위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제 양성을 위한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동성결혼 옹호 영화 상영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대 의사의 표현마저 억압하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독교인 채용을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로 규정하며 시정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에 관여할 교직원 임용 조건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계약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조선 말 평양에서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였던 신학박사 배위랑(Dr. William Baird)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로 1906년 대한제국 최초의 대학으로 인가받아 기독교와 과학 등 근대 교육을 수행하다가 1937년 일제의 신사참배에 맞서 자진 폐교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1954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의 후원으로 서울에 재건되고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의거한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과 ‘무효한 기독교인’을 교직원 자격 요건으로 한 정관을 정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을 수행해 왔다. 강제로 학교가 배정되는 종교교와 달리, 대학생들은 민법상 성인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체력과 성서 강자 수감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숭실대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는 대학운영에 간섭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대학의 권리를 보호하며, 종교기반 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학문의 연구, 교수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제재할 권리, 건학이념 수호에 필요한 학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부과할 권리도 포함한다.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종교관에 기초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자유는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1998.7.16. 96헌바33 결정)와 대법원 판례(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에서도 사립대학의 자유,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학칙 제정의 자유, 교원임용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자인지도 불분명한 신청자들에게 동성결혼 영화에 대한 강의실 대여 취소는 동성애자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이 아닌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기독교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임은 통상의 이해와 사고를 가진 사람이 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조차 ‘동성애자가 요청한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거절한 베이커리 회사의 반대 표현의 자유가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Masterpiece Cakeshop Ltd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et al, 584 U.S. 1 (2018)).

동성결혼을 수용한 국가에서 사기업에 인정되는 이러한 자유가, 동성결혼을 헌법과 법률로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종교기반 사립대학에서 억제된다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유럽인권재판소가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을 확인하여 동성결혼 합법화 성취를 위한 약속을 빨리 펼치길 바란다(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no. 40183/0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공립학교와 사인 학이념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히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방자하여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에 대한 일단의 차별 시정 권고들은 지난 다자성애, 낙태, 성매매, 동성애에 관한 무단 특강을 행한 학생에 대한 한동대학교 징계 취소 시정권고에 이어,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통해 보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성,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시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세력도 결국 패망하였다. 일제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뼈아픈 탄압 가운데 해방된 자유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목숨을 걸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시정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을 다시 강력 경고한다.

# GODIVA

## Belgium 1926

**NEW 고디바 초콜릿 기프트 컬렉션**  
**큐브 트뤼프 & 골드 디스커버리**

**소중한 분들에게 특별함을 선물하세요**

제품문의 080 827 7700 [www.godiva.kr](http://www.godiva.kr)



